

코로나19 재확산에 K리그 절반 이상 '다시 무관중'

K리그 22개 구단 중 12개 구단 '무관중' 전환

대전도 9월6일 홈 경기부터 무관중 전환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프로축구 K리그가 다시 무관중으로 돌아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높였다.

이에 FC서울, 수원 삼성, 성남 FC(이상 K리그1)와 수원FC, 서울이랜드, 부천FC, FC안양, 안산 그리너스(이상 K리그2) 8개 구단 홈 경기가 무관중으로 전환됐다.

이어 인천과 부산도 2단계가 적용되면서 K리그 소속 인천 유나이티드, 부산 아이파크까지 '무관중'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 경기·지역과 무관한 K리그2(2부리그) 충남아산도 18일 "홈 경기를 당분간 무관중으로 진행한다"라고 밝히며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던 전남 드래곤즈와 홈 경기를 관중 없이 치르기로 했다.

충남아산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과 인접한 충남 지역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무관중 전환을 결정했다.

K리그 대구FC도 19일 구단 채널을 통해 "30일 오후 8시 대구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예정된 광주FC와 1라운드 홈 경기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라고 밝

했다.

대구 구단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해 지역 내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대구광역시의 방역 지침을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K리그1·2부 22개 구단 중 12개가 무관중으로 전환했다.

충남아산과 대구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있는 나머지 지역 구단들도 무관중으로 전환을 고심하고 있다.

프로야구 한화가 무관중으로 돌아간 가운데 K리그2 대전하나 시티즌도 9월6일 홈 경기부터 무관중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한 지역 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언제 다시 무관중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면서 "이와 관련된 입장권 환불 조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적장까지 사로 잡았던 '괴물' 류현진

볼티모어 감독 "류, 괜히 거액 계약 맺은 것 아니다"



"괜히 류현진과 거액의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야."

완전한 부활을 알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투구에 적장도 찬사를 보냈다.

류현진은 지난 18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 오리올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볼

티모어 오리올스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4피안타 1실점 쾌투로 시즌 2승(1패)째를 수확했다.

초반 두 경기에서 5회를 채우지 못하고 강판된 류현진은 최근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3자책점 이하)로 정상 궤도 진입을 알렸다.

"볼넷을 줄이겠다"는 다짐대로 시즌 첫 무사사구 경기까지 펼치면서 시즌 평균자책점을 3.46로 끌어내렸다.

류현진의 호투에 적장 브랜던 하이드 볼티모어 감독도 반응했다. 자신들에게 2-7로 패배를 안긴 류현진이지만 호투에 칭찬을 보냈다.

하이드 감독은 "토론토가 괜히 류현진과 거액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 토론토가 류현진과 4년 8000만 달러짜리 대형 계약을 맺은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이드 감독은 "그가 어떤 공을 던질지 모른다. 몸쪽 승부를 할 수 있어 우타자들에게도 강하다"고 보냈다.

한편 페이스를 회복한 류현진의 다음 등판은 큰 이변이 없다면 23일 오전 7시40분으로 예정된 탬파베이 레이스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전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만남이다. 당시 류현진은 4%이닝 4피안타 3실점을 기록했다. 팀은 6-4로 이겼지만 5이닝을 채우지 못해 승패 없이 물러났다.

바르셀로나 회장 "새 감독은 쿠만...메시 떠나지 않아"

메시 이적설에 대해선 "쿠만 프로젝트의 기둥" 일축



'리스본 참사'로 위기에 빠진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가 팀의 레전드인 로날드 쿠만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을 차기 사령탑으로 낙점했다.

주제프 바르토메우 바르셀로나 회장은 18일(현지시간)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우리의 선택은 쿠만 감독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가 다음 시즌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바이

에른 뮌헨(독일)과의 2019~20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서 2-8로 대패하며 탈락한 뒤 키케 세티엔 감독을 경질하고 새 사령탑을 물색했다.

바르셀로나의 선택은 선수 시절 팀의 레전드로 활약한 쿠만이다. 그는 18일 바르셀로나에 도착해 협상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쿠만은 요한 크루이프 감독 시절이던 1989~1995년 동안 바르셀

로나에서 뛰며 1991~1992시즌 유러피언컵(현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공헌한 바 있다.

은퇴 후 지도자로 변신한 쿠만은 아약스, PSV아인트호벤, 페예노르트(이상 네덜란드), 발렌시아(스페인), 사우스햄튼, 에버턴(이상 잉글랜드) 등을 이끈 바 있다.

2018년 2월에는 네덜란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쿠만 감독은 최근 바르셀로나 부임과 관련된 질문에 "내가 원하는 건 맞다"라며 인정했다.

바르토메우 회장은 최근 이적설에 휘말린 리오넬 메시와 관련된 루머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쿠만과 대화를 했고, 메시는 그의 프로젝트의 기둥"이라며 "메시는 2021년까지 계약돼 있다. 그는 이곳에서 선수 생활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본 참사' 이후 바르셀로나는 감독에 이어 에릭 아비달 기술이사까지 경질하며 새로운 팀 재건에 나섰다. 바르토메우 회장은 "이번 사태는 클럽의 위기가 아닌 경기력의 위기다. 이걸 바로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KIA도 무관중 결정...프로야구 당분간 전체 무관중

오늘 NC전 홈경기부터...티켓 전액 환불기로

KIA 타이거즈가 무관중 체제로의 전환을 택했다.

KIA는 19일 "전국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NC다이노스와 홈경기부터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른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이지만, KIA는 정부 방역

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예매가 이뤄진 20~21일 NC전 티켓은 전액 환불된다.

KIA측은 "지역사회 감염이 진정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중 입장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며 "팬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KIA마저 관중석을 닫으면서 팬

들을 받는 구장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잠실(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고척(키움), 수원(KT), 인천(SK) 등이 순차적으로 관중석을 잠갔다.

롯데 자이언츠(부산), 한화 이글스(대전), NC 다이노스(창원), 삼성 라이온즈(대구)도 현재 무관중으로 홈 경기를 소화 중이다.

뉴스스

전북현대, 23일 홈경기에 손 소독제 1만개 선물한다

팬과 함께 코로나 생활 방역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 팬들에게 코로나19 생활 방역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한다.

전북현대가 오는 23일 상주와의 홈경기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휴대용 손 소독제 1만개를 입장하는 팬들에게 나눠준다.

전북현대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에 이르면서 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번 선물을 준

비했다. 이번엔 준비한 손 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멸균율 99.9%의 제품으로 물과 비누가 필요 없이 손쉽게 휴대하며 사용할 수 있다.

전북은 유관중 입장이 전 좌석의 25%까지 확대되면서 1만개의 수량을 준비했으며 각 게이트에서 나눠줄 예정이다.

전북은 향후에도 입장하는 팬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벤투호vs김학범호 스페셜 매치, 9월에서 10월로 연기

FIFA A매치 내년 1월로 변경돼 '의무 차출' 어려워

국제축구연맹(FIFA)의 A매치 일정 조정으로 당초 9월 예정됐던 남자 국가대표팀과 남자 23세 이하(U-23) 대표팀의 스페셜 매치가 10월로 잠정 연기됐다.

FIFA는 1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남녀 A매치 일정 조정을 발표했다.

남자 축구의 경우 유럽축구연맹(UEFA) 주관 대회를 제외하고 9월 A매치 기간(8월31일~9월8일)이 2022년 1월24일~2월1일로 변경됐다.

프로 구단은 A매치 기간에 의무적으로 차출에 응해야 하지만,

A매치 기간이 아닐 때는 선수 차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9월에는 선수 차출이 어려워 대한축구협회(KFA)는 9월 예정됐던 벤투호와 김학범호의 스페셜 매치를 10월 A매치 기간(10월5~13일)으로 연기했다.

10월 A매치 기간에는 원래 2022년 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이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최근 FIFA가 월드컵 예선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10월 A매치 기간을 활용해 벤투호와 김학범호의 스페셜 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10월 경기 날짜와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FIFA는 이번 발표에서 여자 축구 A매치 일정 조정도 공개했다. 여자 축구 A매치도 UEFA를 제외하고 9월 A매치(9월14~22일)가 취소됐다.